다시 심은 회화나무 살아날까

광주시와 동구는 29일 오전 볼라벤의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밑둥치를 드러냈던 옛 전남도청 앞 회화나무를 원래 상태로 심었다. 〈사진〉

강운태 광주시장은 피해상황 점검 중 회화나무 복구현장을 방문해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는 이 나무를 꼭 살려낼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라"고 지시하고 작업에도 직접 참여했다.

나무는 넘어지면서 잔뿌리의 상당 부분이 손상된 데다 수령도 많아 사실상 생존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시와 동구는 회화나무의 역사적 상징성과 시민 정서를 감안해 다시 심었으며, 향후 고사를 막기 위해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29일 오후 헬기에서 내려다 본 나주시 금천면의 배 과수원. 한 농민이 하루 전 강풍으로 떨어진 배들이 과수원 전체에 수북이 쌓여있는 처참한 현장에서 파손된 지붕을 수리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르포-태풍 덴빈 북상에 한숨짓는 배·시설하우스 농가

절반 넘게 떨어졌는데 또… 앞이 캄캄

현장조사 때까지 손 못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말 눈 앞이 캄캄합니다. 이번 같은 바람은 평생 처음 당해봤어요. 정신 못차린 사이 또 태풍이 온다니 온몸에 힘이 쑥 빠집니다."

29일 오후 나주시 금천면 전홍점(여·73)씨의 배 과수원은 하루 전 태풍 '볼라벤'의 강풍에 폭격이라도 맞은 듯 했다. 바닥에 나뒹구는 배들로 발디딜 틈조차 없었다.

"짠한 마음에 굵은 것 몇 개라도 건져볼 요량으로 과수원에 나왔다"는 전씨는 때마침 걸려온 며느리의 안부전화를 받고, 또 한번 마음이 상해 한숨을 내쉬며 풀썩 주저 앉아 버렸다.

그는 "다른 집보다 알이 굵어 오히려 더 많이 떨어져다"며 "15kg 한 상자에 7만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다"고 한숨만 내쉬었다.

이웃 과수원 주인 유동호(67)씨는 "강풍에 흔들린 배들은 생장점이 멈춰 수확기 전에 대부분 자연 낙과하는 바람에 영양분이 다른 꽃눈으로 이동해버려 내년에 배꽃이 다시 피어 배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가만히 있어도 나머지 배들이 다 떨어질 텐데 또 태풍이 온다니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고 또 따자니 재해보험 현장 피해조사 때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37년간 배농사를 지어왔다는 권순렬(65)씨는 "이번처럼 낙과 피해가 큰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며 "정부가 특별 재난재해지구로 지정해 주어야 농가들이 생계를 이어 갈 수 있다"며 걱정했다.

하지만 피해 면적이 광범위해 보상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농가들의 시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떨어진 배들은 현장 조사가 끝날 때까지 처분하지 못해 농민들은 자식 같은 배들이 썩어 나가도 보고만 있어야 할 실정이다.

나주시는 전체 배 재배면적의 60%에 해당하는 1434여ha에서 낙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으며 본격적으로 현장 피해조사가 이뤄지면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볼라벤의 강풍 공습에 울상 짓는 건 배 과수 농가 뿐만 아니었다. 강풍과 비를 동반한 이번 태풍에 비닐하우스가 대부분 찢겨나간 광주시 남구 승촌동의 시설하우스 농가들은 또 다른 태풍과 많은 비가 온다는 소식에 들녘에 나와 시설하우스를 보수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정철민(58)씨 "이런 바람은 난생 처음이었다"며 "휙휙 나부끼는 비닐하우스를 보고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상황이어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울상지었다. 그는 "고추 같은 작물은 물만 닿으면 다 망쳐버린다"며 "급한대로 보수는 하지만 또 큰 비가 온다니 뭘 해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피해조사와 복구 지원을 위해 현장을 찾은 구청의 관계자는 "피해규모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농작물 등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복구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손영철기자 ycson@

강풍 속 경찰 인명구조 빛났다

좌초 화물선 선원 10명 구조 산소호흡기 중단 환자 살려

강풍을 동반한 제15호 태풍 '볼라벤'이 광주·전남을 통과하는 동안 경찰관들이 눈부신 활약을 벌여 귀중한 생명을 건졌다.

목포해경은 지난 28일 오후 6시 30분경 신안군 암태면 선착장 앞 해상에서 좌초된 부산선적 1500t급 화물선 J호 선장 김모(64·대구시)씨 등 승선원 10명 전원을 구조했다고 29일 밝혔다.

J호는 28일 오전 8시 35분께 해상에서 닻을 내리던 중 강한 바람에 해안가로 끌려가면서 좌초됐다. 해경은 인명구조용 단정 2척을 투입해 구조작업을 벌였으나, 강풍과 파도가 지속돼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해경의 끈질길 구조작업으로 김씨 등은 사고 발생 10시간 만에 모두 구조됐다.

강진경찰서 성전파출소 직원들도 신속한 출동으로 응급환자를 살려냈다.

태풍이 절정이던 지난 28일 오전 7시20분께 성전파출소에 한 통의 구조요청 신고가 접수됐다. 광주에서 사는 조모(여)씨가 성전면에 거주하는 친정 아버지(77)의 구조를 요청한 것이다.

조씨는 "아버지가 폐질환을 앓고 있어 산소호흡기로 연명하고 있으나 정전때문에 산소호흡기 작동이 중단됐다"며 다급하게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를 받은 성전파출소 김석주(45) 경사와 김동호(32) 경장은 태풍에 꺾이고 쓰러진 나무를 헤치며 출동해 무사히 강진의료원에 이송해 위기를 넘겼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나운찬 〈8642〉 김종두

승용차 2대 하천 추락

29일 오전 9시 50분께 광주시 북구 임동 무등경기장 인근 도로에서 송모(41)씨가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가 좌회전하는 SM5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어 그랜저 차량이 주차된 또 다른 그랜저 차량을 추돌해 2대가 함께 인근 하천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송씨가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완도서 화물선 좌초 벙커C유 대량 유출

태풍 '볼라벤'으로 좌초된 화물선에서 기름이 유출돼 해경이 긴급방제에 나섰다. 29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께 완도군 약산면 한 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캄보디아 선적 2900t 급 K호가 강풍에 밀려 해안가 절벽 지역에 좌초됐다. 사고 당시 선원 16명은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그러나 이 사고의 여파로 선박 안에 실려 있던 벙커C유가 유출돼 해경이 경비정 10척, 방제정 1척과 100여명의 인력을 동원해 방제에 나서고 있다. 선박안에는 100t에 이르는 벙커C유가 적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특수강도 전 국가대표 6년 구형

쌍나팔

○…40대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외제차를 훔친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동현(2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

○…검찰은 김씨와 공모해 차를 훔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윤찬수(26)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하고, "한때 전도유망했던 두 운동선수가 법정에 선 것이 안타깝지만, 피해자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한 일이 더욱 안타깝다"고 배심원들을 설득. /연합뉴스